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10월 4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로마서 12장 1-2절

설교제목 :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의 백성을 삶을 한마디로 예배라 규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신의 전 존재,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의 삶이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선포되도록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곧 삶이요 삶은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삶입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당과 삶의 자리를 분리하지 않는 참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지는 제의적 예배라면 2절의 말씀은 굳이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2절은 삶이 전제가 되는 예배이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진정한 예배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해 보면,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속화는 섞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신앙인이 세상과 동떨어져 살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섞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질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거룩은 섞지 않는 것입니다. 구별입니다. 뒤섞이면 정결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섞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이란 한마디로 세상의 풍속 혹은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는데,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에서 ‘마음’이란 헬라어 누스인데 생각 혹은 지성입니다. 지성을 움직이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세계관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인식과 사고의 틀입니다. 세계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중심의 세계관으로 삶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의 핵심은 세계관입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은 세계관 싸움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모두 해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질서와 규범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체를 위해 그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권위가 왜 중요합니까?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대인 계명의 첫 번째인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5계명의 중요성은 단지 부모공경이란 윤리적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지상명령과 쉼과 더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5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규범과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근동의 부모는 자녀들의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결코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16:18-18:22에서 제 5계명을 시대에 맞게 상황화합니다. 신명기 법전은 십계명의 해설서입니다. 그 본문에서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과 어떻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왜 이러한 권위자들이 소개되었습니까? 이 네 부류의 권위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책임 때문입니다. 이들의 책임은 말씀대로 통치되는 질서를 세워가는가?입니다. 이것은 앞서, 제 5계명을 통해 살펴본 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써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5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공교육이 무너졌습니까? 탈권위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전략은 권위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권위자의 권위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목회자, 선생님의 권위를 해체합니다. 그 해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법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범과 말씀이 전하는 세계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체제를 정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관 싸움입니다. 세계관을 바꾸면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의 세계관에 섞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세속에 섞이냐 마느냐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동화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되고, 세상을 주도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혁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니’**라는 말씀이 7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진멸하지 못하였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의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7-21장까지 사사기 뒷부분에서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레위인의 타락 때문입니다. 즉 레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각 성에 흠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성에 흠어진 레위인들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레위인들이 타락하여, 이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세상과 동화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과 동화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냐 아니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시대는 항상 동화되어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대는 항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 지 설명해 봅시다.
- 2) 세계관이란 무엇이며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5계명이 갖는 본질적인 중요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4) 사사기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세속에 속한 세계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